

“대한민국청년지속가능발전대회” - SDGs 달성 반환점에서 청년의 역할 - SDGs 지역사회 이행 및 국제사회 공조 방안

UNSA-ROK 부협회장 신다경

지금 세계는 SDGs 이행 기한인 2030년까지 15년 중 딱 7년을 지나 Global Warming에서 Global Boiling의 사태로 들어서며 공통의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 전환점에서 대한민국은 SDGs 달성을 위한 역대 행보와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여 남은 기간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서로 점검하며,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주요한 이해당사자는 행정적 기반을 다져지는 역할을 할 정부, 행정적 기반을 지역사회에서 맞게 최적화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지자체 그리고 미래세대이자 새로운 시각에서 기성세대를 점검할 수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해당사자들이 맡은 역할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력과 점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엔한국학생협회는 수도권 10개의 지회와 부산 2개의 지회, 전남 1개 지회, 경북 1개 지회, 전국을 대상으로 한 1개의 지부로 이뤄져 유엔의 이념과 목표를 대학생 차원에서 이행하고 있는 청년연합단체입니다. 저는 부협회장으로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UNSA를 운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가 SDGs 지역사회 이행 및 국제사회 공조 방안인 만큼, 제가 UNSA 운영을 하며 느끼게 된 경험들을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의 해결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대학과 지역으로 구성된 단체는 다각적인 시각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으로 된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특히 대면 행사에 있어서 비수도권 지회와 수도권 지회 간 형평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즉, SDGs 목표로 말씀드리자면 10번 모든 경우의 불평등 해소 달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수도권에 다수의 지회가 속해있는 만큼 수도권에서 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이 경우 비수도권 지역 지회들에게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회에게 초점을 맞출 경우, 수도권 지회들에게 역차별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에 이 또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2년 간 행사를 진행하며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지자체와 청년단체 간 협력 기회 증진이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2022년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예천군에서 농촌활동을 통해 SDGs 교육과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하였고, 2023년에는 부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

회와의 협력하여 유학생들과 함께 UNSA Global 여름 캠프를 통해 유엔청년보고관으로서 부산시의 SDGs 이행 정도를 청년의 시각에서 점검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 배운 점은 지자체와 청년단체의 협력과 지역 청년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소통 기회는 지역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 데 그리고 SDGs를 지역 사회 내에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특히 이번에 진행한 UNSA Global 여름캠프를 통해 다소 고립되었던 부산지역 회원들과 이해관계를 단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부산 회원분들께서도 행사 이후 교류의 필요성을 깨달으셨다며 긍정적인 반응 보여주셨고, 부산에서 지속적인 행사 주최 독려와 함께 되려 앞으로는 수도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아직까지도 열렬히 보내주고 계십니다.

앞서 저희가 진행한 행사들과 같이 지자체가 지원하고, 청년단체가 기획하고 참여하는 활동은 지역 불균형 해소 외에도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자체는 청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줌으로써 해당 지역의 SDGs 이행에 대한 청년들의 인사이트를 얻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외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고, 청년단체는 비수도권 지역 지회의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를 발굴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청년단체의 협력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행사, 대한민국청년지속가능발전대회가 정부, 지자체, 청년들의 공론의 장, 협력의 장이 되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9조 1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수렴의 장이 대한민국청년지속가능발전대회가 그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청년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정부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청년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실천해 나간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하고, 서로의 활동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다보면 공론의 장은 물론, 민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SDGs 달성 반환점에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정부, 지자체, 청년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며 서로 협력해야 하며, 그 실마리에는 정부, 지자체와 청년 간 협력 기회 증진을 통한 지역 청년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소통 기회 확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년의 역할은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같은 청년들에게 SDGs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특정 집단의 숙제가 아닌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수도권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이뤄나가야 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협력의 기회가 증진되기를 바랍니다.